



신지애



이일희



박인비

88년생 트리오 “6승 책임지마”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는 ‘88년생 태극남자’들이 슬라이트 클래식에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31일(현지시간)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캘리웨이의 스虐顿 시부 골프장(파71·6155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지난주 퀴어실크-바하마 대회 우승자인 이일희(25·볼빅)를 필두로 한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총상금은 13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1999년 박세리, 2006년에는 이선희가 우승한 대회이다. 기록이다.

이 대회에 앞서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11개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5개에서 우승트로피를 수집했다. 시즌이 3분의 1가량 진행된 가운데 역대 한국 선수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2009년(12승)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벌써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세리 키즈’의 선두주자인 1988년 응띠 동갑내기 친구들이 자리 잡았다.

한국, 올 LPGA 벌써 5승

내일 슬라이트 클래식 개막

태극남자 대거 출전

시즌 개막전인 호주 여자오픈의 신지애(25·미래에셋)를 시작으로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3승, 이일희가 1승을 보태 ‘한국군단’의 5승을 모두 책임졌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한 이일희가 2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시즌 초반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한 이일희는 이달 출전한 3개 대회 중 2개 대회에서 ‘톱3’에 드는 저력을 뽐내고 있다. 이달 초 킹스밀 웹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른 데 이어 바하마 대회에서는 감격스런 첫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일희와 절친한 사이인 신지애가 ‘동반 상승세’를 탈지도 기대를 모은다. 이일희가 첫 승을 차지하자 LPGA 투어 데뷔 초기 신

지애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실이 알려져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막전인 호주 여자오픈 이후 하리부상으로 주춤했던 신지애는 이달 중순 모빌베이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올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는 최근 페이스가 주춤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LPGA 투어 상금랭킹 1위(87만7700달러)를 달리는 박인비는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실통파스컵에서 기권하는 등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바하마 대회에서도 공동 10위에 머물렀다.

‘세리 키즈’의 우상인 박세리(36·KDB금융그룹)도 함께 출전, 이를과 ‘샷 대결’을 펼친다. 최나연(26·SK텔레콤),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 서희경(27·하이트진로) 등도 나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는 디렌딩 웹피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세계랭킹 2위) 등이 ‘태극 남자’들과 맞선다.

/연합뉴스

지역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실이 알려져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막전인 호주 여자오픈 이후 하리부상으로 주춤했던 신지애는 이달 중순 모빌베이 클래식에서 공동 4위에 올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는 최근 페이스가 주

춤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LPGA 투어 상금랭킹 1위(87만7700달러)를 달리는 박인비는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실통파스컵에

서 기권하는 등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바하마 대회에서도 공동 10위에 머물렀다.

‘세리 키즈’의 우상인 박세리(36·KDB금

융그룹)도 함께 출전, 이를과 ‘샷 대결’을 펼친다. 최나연(26·SK텔레콤), 유소연(23·하

나금융그룹), 서희경(27·하이트진로) 등도

나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는 디렌딩 웹피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세계랭킹 2위) 등이 ‘태극 남자’들과

맞선다.

K리그 13라운드 베스트 11

전남 드래곤즈 3명 선정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린 전남 이 3명의 선수를 베스트 11에 올렸다.

전남 드래곤즈의 수문장 김병지, 미드필더 박준태, 수비수 이승희가 29일 프로구원 맨이 발표한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전남은 수원과의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41분 터진 박준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성공 했었다.

수원과 선방 대결을 벌였던 김병지는 ‘상대 슈팅을 연거푸 걷어냈고 안정적인 수비 자세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13라운드 최고의 골키퍼가 됐다.

팀에 현급같은 승점 3점을 안겨준 박준태는 ‘기동력이 높아보이는 측면을 으로도 교체 투입돼 극적인 결승골 폭발’이라는 호평과 함께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 부문에 선정된 이승희는 ‘파워 있고, 우직한 상대 공격수에게 밀리지 않으며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병지



박준태



이승희

광주 FC, 난적 FC 서울과 16강전

FA컵 대진 추첨…전남, 수원과 격돌

광주 FC가 난적 FC 서울을 상대로 극적인 승부를 펼친다.

광주가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13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16강) 대진 추첨과 K리그 클래식의 강호 서울과 격돌하게 됐다.

경기는 7월 10일 오후 7시30분. 두 팀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 8강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광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승부다. 강호 서울을 상대로 8강 까지 오른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규리그에서 자신감을 총

진할 수 있다.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더라도 후회없는 승부로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기다.

광주 FC 관계자는 “모 아니면 모다. 2011시즌 당시 디펜딩 챔피언 서울에 승리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듯이 FA컵에서도 승부를 걸어볼 생각이다. 아쉬울 게 없는 경기인 만큼 멋진 승부를 펼쳐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규리그에서 8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 클래식의 전남 드래곤즈는 철린지 리그의 수원 FC와 FA컵 8강행을 다룬다. 경기는 7월 10일 오후 7시 광양 전용 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선수들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대반초등학교에서 열린 ‘1차 광주 FC와 함께하는 희망축구교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 FC, 대반초등학교서 찾아가는 축구교실

광주 FC가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김선·김수범·임하람·유종현이 29일 대반 초등학교를 찾아 ‘광주FC와 함께하는 희망축구교실’의 강사로 변신했다.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게 된 대반초 김선은 교사로 나서 축구를 알리고 장기자랑, 질의응답, 점심 배식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역 유소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 U-12세 이재찬 코치의 진행으로 5-6학년 학생 50여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선수들은 패스, 드리블 등 축구클리닉의

강사로 나서 축구를 알리고 장기자랑, 질의응답, 점심 배식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하게 된 대반초 김선은 교사로 나서 축구를 알리고 장기자랑, 질의응답, 점심 배식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역 유소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 U-12세 이재찬 코치의 진행으로 5-6학년 학생 50여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선수들은 패스, 드리블 등 축구클리닉의

교사를 알리고 장기자랑, 질의응답, 점심 배식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13년 5월 29일 일시 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600,000,000원 중금 2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들의 흥미를 받아 발행주식 450,000주 중 70,000주를 1주당 금5,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의 개시일로부터 1월내에 주주권은 본 회사에 제출하시고 이는 제권자는 이 공고개재 일로부터 1월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30일

유한회사 전진산업개발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213-4

대표 이사 김 선 섭

분할합병 및 전기공사업 양도공고

당 회사는 2013년 5월 29일 일시 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600,000,000원 중금 2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들의 흥미를 받아 발행주식 450,000주 중 70,000주를 1주당 금5,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의 개시일로부터 1월내에 주주권은 본 회사에 제출하시고 이는 제권자는 이 공고개재 일로부터 1월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30일

주식회사 미래 산업개발

경기도 평택시 인증동 인증리 291-2

인증강산리 4층 406-1호

대표 이사 권 혁 상

상속한정승인 공고

광주기정법원 목포지원

시간번호 : 2013-년-312 상속한정승인

상자 : 광주기정법원 목포지원 065-050-2666910

최후주소 : 전남 화평군 대동면 화평로 169-25 등록기준일자 : 2013-05-29

등록증명 : 2013-05-29